◉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사순절 순례는 잘 하고 계신지요?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신앙실천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1년 동안 청파교회의 찬양대원으로 수고할 이들을 임명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신년 교사 세미나가 오후 1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동호회별로 모입니다. 봄이 가깝습니다. 꼭 참석하시어 좋은 친교의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모입니다.

18일(월)부터 3월 1일(토)까지 바울 사도의 제2차 선교여행지를 순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사순절 환경기도제목을 참조하면서 신음하는 피조세계를 위해 늘 기도하십시오.

대 장 : 김근종 지 휘: 윤주원 반 주: 최윤선 최미선
소프라노 : 이은자 오현정 임수연 정현주 한선희 황선희
메조소프라노: 구명자 김명희 김수연 송양진 신윤정 정미경 정영선
앨 토 : 윤수진 김재영 정옥영 최성애 최윤희
테 너 : 안길상 이광섭 임원민 장재영 한상익
베이스 : 최명동 안종일 이종현 이한림 조항범 김근종

| 부별 | 시간 | 장소 | 부별 | 시간 | 장소 |
|---|---|---|---|---|---|
| 유 아 부 | 10:50 | 유아부실 | 1부예배 | 09:30 | 교육관 |
| 유 치 부 | 10:50 | 유치부실 | 2부예배 | 11:00 | 대예배실 |
| 유초등부 | 10:50 | 교 육 관 | 오후집회 | 14:00 | 교육관 |
| 중고등부 | 10:50 | 중고등부실 | 수요집회 | 19:30 | 교육관 |
| 청 년 회 | 13:30 | 청년회실 | 새벽기도회 | 06:00 | 교육관 |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100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길을 걸으면서도 자주 넘어지고, 끊임없이 길을 벗어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아간다는 것이 왜 이리도 힘겨운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의 리듬을 타고 살기보다는 세상의 북소리에 발맞추어 살다 보니 자꾸만 비틀거리게 됩니다.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라는 유혹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주님, 우수 절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겨울 가뭄에 푸석푸석해진 대지에 내리는 비처럼,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평화와 기쁨의 원천임을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우리의 교만을 뿌리 뽑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장민숙 박애순 배삼순 권호천 임주빈 최현옥 조관행 홍선희 문복순 최현선 왕성환 강순배 김용길 최영혜 김윤수 박상호 박병구 배근수 김금순 김지호 장성호 권미숙 오미래 무명2

**월정헌금:**
고숙이 김미순 김윤정 김성자 김정애 배부례 이갑재 이재구 황선희 이호원 이인웅 전영자 최윤희 김영순

**감사헌금:**
김철수 유영남 김훈동 유경순 조두희 오연훈 김연희 최숙화 김정길 김중수 배근수 김금순 김순복 이정은 이동엽 왕성환 강순배 김희진 박홍재 오광자 정현창 고재중 김영순 김용진가족 무명5

**생일감사헌금:** 조관행 홍선희

**100주년 기념헌금 :**
이영순 무명1
(100주년 헌금 누계 : 162,810,000원)

| | | | | |
|---|---|---|---|---|
| | 장 혜 숙 | 장 혜 숙 | 장 혜 숙 | 정 두 리 |
| | 노 순 옥 | 정 경 례 | 노 순 옥 | 정 경 례 |
| | 임 정 자 | 임 정 자 | 임 정 자 | 정 복 순 |
| | 문 영 혜 | 박 경 선 | 김 진 경 | 박 경 선 |
| | 안 정 숙 | 박 애 순 | 안 정 숙 | 박 애 순 |
| | 박 홍 재 | 곽 권 희 | 박 홍 재 | 곽 권 희 |
| | 박 효 선 | 허 정 윤 | 박 효 선 | 홍 복 선 |
| | 최 숙 화 | 권 미 정 | 최 숙 화 | 이 갑 재 |
| | 이 순 정 | 김 금 순 | 이 순 정 | 김 금 순 |
| | 이 형 숙 | 권 미 숙 | 이 정 은 | 최 종 원 |
| | 안 홍 숙 | 오 현 정 | 안 홍 숙 | 오 현 정 |
| | 백 혜 숙 | 정 옥 영 | 정 옥 영 | 정 영 선 |
| | 송 양 진 | 유 경 순 | 송 양 진 | 유 경 순 |
| | 이 영 란 | 박 미 영 | 방 극 숙 | 박 미 영 |
| | 박 혜 경 | 최 영 혜 | 박 혜 경 | 조 항 미 |

# 저 녁

-- 정명성

기도시간을 알리는
종소리 같은 하얀 연기가
굴뚝마다 피어오른다

처마 밑 장작더미 틈새로
뉘엿뉘엿 스며든 석양을 거두어
아궁이 속에서 불로 지피는 사람들

바람은 멎고
새들은 산으로 돌아가고
등불처럼 오롯이 타오르던
노을도 꺼져가는 저녁
홀로 남은 빈들엔
어둠이 내려,
종소리보다 평화로운
어둠이 내려

저녁기도 끝나는 시각
연기를 지펴 올린 마을 하늘에
강가의 돌들만큼이나 무수히
피어난 저 환한 별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 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 휘** : 윤주원 안홍숙 **반 주**: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사십시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내려야 하는 결단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기쁨 속에서 하루를 영원처럼 살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알아차릴 수도 있도록 우리 눈을 밝혀주십시오. 아멘.

| 주일 오후 집회 | 수요 집회 |
|---|---|
| 동호회 | 말씀 / 김재흥 목사 |
| 아름답도다, 성도의 교제! | 기도 / 정현주 집사 |

| | 설교 | 기도 | 성경봉독 |
|---|---|---|---|
| 다음 주 예배위원 | 이성운 전도사<br>양재성 목사 | 하진솔 선생<br>방문성 장로 | 인도자<br>장혜숙 권사 |

| | | |
|---|---|---|
| 2월 | 영접위원 | 한완식 이호원 김 극 박홍재 백혜숙 권미정 |
| | 헌금위원 | 조병무 박혜경(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 거북이를 통해 배우다

토끼와 거북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해도, 갈 필요가 있는 곳에 기어이 가고야 마는 거북을 목격하기 전에는 그 이야기를 정말로 이해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거북은 구덩이에서 기어 나오는 데 무척 애를 먹었다. 모래가 푸석푸석했고 구덩이 측면이 계속 허물어져, 거북은 구덩이 바닥으로 자꾸만 굴러 떨어지곤 했다. 떨어질 때마다 거북은 잠시도 쉬지 않고 다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한결같이 느리고 엄격한 속도로 휘젓는 짤막한 다리, 모래를 뒤로 퍼내는 물갈퀴가 달린 발톱, 앞으로 쑥 내민 전설적인 턱과 원시적인 머리는 시간 자체만큼이나 무자비했다. 가엾게도 거북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다. 얼마 후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고 병을 분류하는 일로 돌아갔지만, 나는 마지 아줌마나 다른 누군가가 결국 거북을 구덩이에서 꺼내줄 거라고 아들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에런과 내가 힘든 일을 끝내고 다시 거북을 보러 갔을 때, 거북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아무도 거북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거북은 구덩이에서 기어 나오는 데 성공했고, 지금은 다시 늪 속에 들어가 그날 해야 할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나는 다른 거북들도 보았다. 초여름에 차를 몰고 나가면, 시냇물을 가로지르는 길에서 거북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한번은 차를 몰고 다리를 지나가는데, 거북 한 마리가 다리를 횡단하고 있었다. 나는 거북이 지나가도록 다리 한복판에 차를 세웠다. 거북은 5미터 아래에 있는 시내에서 다리까지 기어올라온 게 분명했다. 나는 차에서 내려 거북이 힘겹게 아스팔트를 횡단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거북은 다리 가장자리에 이르자, 자기가 다리 위에 있는 줄도 모르고 다리 가장자리 너머로 몸을 기울여 자기가 떠나온 시냇물로 곤두박질쳤다. 그때 거북이 어떤 기분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내 기분은 끔찍했다. 나는 그 헛수고에 낭패감을 느끼느라 바빴고, 거북의 추락을 내 인생의 어설픈 시작과 갑작스러운 종말의 표상으로 만드느라 바빴지만, 그 동안 거북은 냇가로 헤엄쳐 나와 다시 저 높은 강둑으로 기어오르는 고행을 시작하기 위해 물에서 제 몸을 끌어내느라 바빴다. 거북은 거기에 멍하니 서서 감상과 한탄에 잠겨 있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봤어? 내가 어떻게 춤을 추는지 봤어? 내가 어떻게 해냈는지 봤어?"

하루는 여섯 살배기 딸 애밀리아와 함께 부엌에 있었다. 아이들은 이제 내 손이 작은 물건을 다루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지퍼와 걸쇠, 버클과 나사 같은 것으로 우리 세계를 결합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하지만, 나는 그런 물건을 다루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애밀리아가 여기에 대해 제 의견을 말한 게 분명했다. 우리의 대화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

"내 손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아직은 너를 안아줄 수 있어."

"팔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네가 '나'를 안아주어야겠지. 네가 안아주기만 하면 난 괜찮을 거야."

이제 내 딸은 싸구려 감상을 냄새맡는 날카로운 후각과 법률가 같은 엄밀함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빠, 내가 안아주지 않아도 아빠는 '살아남을' 수 있어."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 애밀리아는 거북이 아는 것을 알고 있다. 애밀리아의 말이 옳다.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인간이니까 그 이상의 것도 알고 있다. 나는 살아 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복까지 받았다. 아침에 침대에서 나올 수 있는 날은 하루하루가 나에게는 축복이다. 우리가 팔다리를 움직여 세상일을 할 수 있는 날은 그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축복이다. 팔다리가 위축되고 말을 못하게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다. 이 심장이 뛰는 한 나는 축복받은 존재다. 날마다 일어나서 상실에 직면하는 것, 슬픔과 무력감과 고통에 직면하는 것, 모든 노고가 헛수고로 끝났는데도 빈 둥지를 뒤에 남기고 구덩이에서 기어 나와 다음 번식기의 행사를 향해 기어가는 거북처럼 움직이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일이고, 결국 우리 인간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

뉴햄프셔의 작은 도시에서 백만장자인 마지 아줌마는 날마다 쓰레기장에 가서 우리의 생활 찌꺼기가 모두 제대로 버려지는지 감독하고,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을 분류하고, 아래쪽 늪으로 스며들지도 모르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난다. 그래야만 비버들이 늪에서 일을 계속할 테고, 비버가 만든 댐에 갇혀 물이 불어날 테고, 거기서 거북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초여름이 되면 둥지를 틀기 위해 육지로 기어오를 테고, 그 중 몇 마리는 쓰레기장으로 올 테고, 쓰레기장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온 다른 아버지들과 다른 아들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곳에서 거북이들을 볼 수 있을 테고, 거북이들이 춤추는 법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립 시먼스, <<소멸의 아름다움>> 중에서